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31



Contents

※ 2026.05.21.(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5.14.~2026.05.2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기재부, 탄소중립 정책 자체평가서 최하위권 평가... 정책효과성 미흡 지적 (2026.05.18) · 1
- 정읍시, 2026년 22억 투입해 노후 경유차 627대 폐차 등 '탄소중립·기후안심 도시' 로드맵 본격화 (2026.05.20) 1
- 광명시, 1.5°C 기후의병 1만 7,500명 돌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92.8% 감축 달성 (2026.05.19) · 2
-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자원순환센터 1층서 업사이클링 체험 공간 운영 (2026.05.18) 3
- 하남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259곳 집중 점검... 탄소중립 실현 박차 (2026.05.14) 3

■ AI 분야 4

- 남동발전·경상국립대, '2026 탄소중립 바이오차 포럼' 공동 주최... 산학연관 협력 강화 (2026.05.17) 4
- 충북교육청, '2050 학교환경교육 실천단' 30여 명 대상 친환경 시설 현장 체험 연수 진행 (2026.05.20) 4
- 시흥에코센터, 개관 10주년 맞아 6월 5~7일 '함께, 시흥을 잇다' 환경축제 개최 (2026.05.18) 5
-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지속가능한 내 옷장' 교육으로 패션산업·기후위기 연관성 조명 (2026.05.20) 6
-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국립 대전숲체원서 중학생 대상 '2026 초록숲 감성 캠프' 운영 (2026.05.17) 6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국회 기후노동위, '전력망 3법' 통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대응 위해 민간기업 송전망 건설 허용 (2026.05.20)7
- 국회, 'AIDC 산업 진흥 특별법' 통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하나 LNG PPA 빠진 '반쪽 해법' (2026.05.19)7
- 고용정보원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발표... AI 시대에도 의사·은행원 등 62%는 현재 유지 (2026.05.19)8
- 울산 울주군·울산테크노파크, AI 기반 청년 스마트팜 육성사업 추진... 생성형 AI·GPT 적용 (2026.05.14)9
- 대구시·디지스트·지역 기업, 국토부 'AI 시티 혁신 기술 발굴' 공모 선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서비스 개발 (2026.05.14)9

▪ AI 분야 10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16개 과제 수주... 172억 규모 제조 AX R&D 추진 (2026.05.20)10
- 서울AI허브, 체코 인공지능협회와 MOU 체결... 국내 AI 스타트업 유럽 진출 교두보 마련 (2026.05.15)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1

▪ 탄소중립 분야 11

- 코스맥스, 한화솔루션 큐셀과 태양광 PPA 체결... 국내 공장 전력의 40% 재생에너지 전환 (2026.05.19)11

-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나비오스 사이언' 명명식 (2026.05.14) 12
- 스피폭스, 알루미늄 부산물 활용한 '파파야 시스템'으로 난방에너지 22% 절감 도전 (2026.05.18) 12
- 공주대, 산업부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선정... 6년간 13억 지원받아 저탄소 콘크리트 개발 (2026.05.17) 13
- 상지대 농업탄소중립인력양성사업단, 몽골 식량농업경부 고위 공무원단에 스마트농업 연수 (2026.05.14) 14
- 맥도날드, 2030년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난항 인정... 10년간 10억 달러 투입 (2026.05.20) 14

▪ AI 분야 15

- 현대그린푸드, AI 영양상담 서비스 '그리팅 X'로 독거노인 식단 지원... 케어푸드 CSR 확대 (2026.05.19) 15
- 롯데그룹, 챗GPT 앱스 활용 'AI 커머스' 확대... 홈쇼핑·웰푸드·칠성음료·시네마 잇따라 연동 (2026.05.18) 16
- SK AX, 오픈AI와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파트너 계약 체결... SI 빅3 모두 합류 (2026.05.15) 16
- SK에코플랜트, 1분기 매출 99% 급증... AI 인프라·반도체 사업이 성장 견인 (2026.05.15) 17
- 현대차·기아, 인도 최상위 4개 공과대학과 전기차·AI 공동 연구 체계 구축 (2026.05.18) · 18
-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출시... 차세대 생생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 최초 탑재 (2026.05.14) · 18
- 구글플레이, '창구 8기' 스타트업 100개사 선정... AI 활용 앱·게임에 글로벌 지원 확대 (2026.05.18) 19
- 대교 솔루션, 'AI 글쓰기 평가' 활용 전국 논술대회 개최... 초·중생 대상 6가지 글쓰기 요소 평가 (2026.05.18) 19
- KAIST, 봉지재 없이 27% 효율·4년급 안정성 갖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AI 데이터센터 우주 전력 적용 기대 (2026.05.19) 20

- KAIST 총장 후보 3배수 확정... 류석영·배충식·이도헌 교수, AI 전환기 리더십 향배 주목 (2026.05.17) 20
- KAIST, 과기외교센터(KCSD) 출범 글로벌 포럼 개최... AI 시대 기술주권·국제공조 해법 모색 (2026.05.14) 21
- 경북과학대, 칠곡군과 AI·디지털 생활문해교육·RISE 산학협력 협약 잇따라 체결 (2026.05.20) 22
- 강원도립대, 교육부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3년간 23억 확보 (2026.05.15) 22
- 국립부경대 창업기업 팀리부뜨, 해양수산부 딥테크 사업 선정... 27억 규모 해운 AI 플랫폼 개발 (2026.05.14) 23
- 송실대 박찬준 교수, 59억 규모 '독서토론 돕는 AI 에이전트' 개발 과제 공동연구책임자 선정 (2026.05.14) 24
-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구자열 회장 "韓·日, 에너지·공급망·피지컬AI 동맹으로 생존해야" (2026.05.19) 24
- EU 이사회, 국방·AI·반도체 등 핵심 분야 FDI 심사 의무화 규정 통과... 中 우회투자 차단 (2026.05.19) 25
- 머스크, 오픈AI 상대 1,500억달러 소송 '사한 만료' 1심 패소... 즉시 항소 예고 (2026.05.19) 26
- 몰타, 오픈AI와 '전 국민 챗GPT 플러스 1년 무상 제공' 계약 체결... 세계 첫 사례 (2026.05.19) 26
- 미국, '반도체 통제 협상 대상 아니다' 재확인... 미·중 AI '각자도생' 흐름 가속화 (2026.05.15) 27
- 일본, 곰 출몰 급증에 AI 영상분석·드론 활용 본격화... 인구 천여 명 마을 사례 주목 (2026.05.15) 28
- 일본, 곰 출몰 급증에 AI 영상분석·드론 활용 본격화... 인구 천여 명 마을 사례 주목 (2026.05.15) 29
- 美 컬럼비아대, 'STaR' AI 시스템으로 무정자증 남성 정자 식별... 클라인펠터 환자 임신 성공 첫 사례 (2026.05.14) 29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기재부, 탄소중립 정책 자체평가서 최하위권 평가... 정책효과성 미흡 지적 (2026.05.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조직 분리 전)가 공개한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67개 주요 정책 관리과제 중 최하위 G등급을 받은 4개 과제 가운데 절반이 탄소중립 관련 사업으로,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가속화 및 K-콘텐츠 수출' 과제가 모두 G등급으로 분류됨. - '탄소중립 기반 구축' 과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작업과 배출권 총량·유상할당 비율을 담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 수립이 성과로 평가됐으나, 정책효과성 부문에서 가장 낮은 '하' 등급을 받았으며 2050 중장기 감축 목표 수립 시 관계 기관·업계와의 적극적 소통과 배출권 시장 안정화 예비분(MSR) 등 가격 신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음. - '탄소중립 가속화' 과제는 목표치는 달성했으나 더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세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지적됐으며, 거시경제·금융 안정적 관리, 소득세제 포용성 강화 등 핵심 과제도 하위권인 F등급에 머무르는 등 기재부 주요 정책 전반의 효과성 제고가 향후 과제로 부상함.
지자체	<p>☐ 정읍시, 2026년 22억 투입해 노후 경유차 627대 폐차 등 '탄소중립·기후안심 도시' 로드맵 본격화 (2026.0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정읍시가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627대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500대 민간 보급을 추진하며, 상반기 전기승용차 140대·전기화물차 83대·수소전기차 20대 등 총 243대를 이미 공급하고 하반기 추경을 통해 257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임. 60억원 규모 수소충전소가 연말 완공되면 내년부터 수소전기차 보급도 본격 확대 예정임. -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약 12억 5,820만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지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사업을 실시하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한편, 건설기계 및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14대) 등 혁신적 저감 대책을 병행함. '제3차 정읍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6~2030)' 수립 용역도 진행 중임.</p> <p>- 시는 '2025~2034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적 목표를 지난해 21.4%에서 올해 23.06%로 상향함. 유효연 시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가 현실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부터 과학적 기후 적응 전략까지 촘촘하게 실행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힘.</p>
	<p>□ 광명시, 1.5℃ 기후의병 1만 7,500명 돌파... 2050 탄소중립 로드맵 92.8% 감축 달성 (2026.05.19)</p> <p>- 광명시가 2018년 9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전담 부서를 신설한 이래 2023년 10월 '탄소중립과'로 개편하며 행정 역량을 집중해온 가운데, 지난해 목표 감축량 4만 120톤 중 3만 7,232톤을 실제 감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92.8%를 달성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28개 이행과제 중 온실가스 감축 부문 84개 과제 가운데 61개가 정상 추진되며 이행진척도 72.6%를 기록함.</p> <p>- 시는 2023년 11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한국환경공단 시범사업으로 선제 도입했으며, 2024~2028년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임대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탄소중립 기여 기업 지원 등에 직접 투입함. '탄소중립 실천 제조기업 재정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설비 교체 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기후대응 실천 우수 아파트'에는 최대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함.</p> <p>- '1.5℃ 기후의병'은 올해 2월 기준 1만 7,500명이 넘는 개인 회원을 보유한 실행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실천 항목을 19개에서 24개로 확대해 연간 1인 최대 10만원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함. 시 관계자는 2026년에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의 기부 모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복지로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힘.</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자원순환센터 1층서 업사이클링 체험 공간 운영 (2026.05.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강동구가 고덕동 자원순환센터 1층에 마련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을 18일 관람객이 찾아 업사이클링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됨. 체험관은 탄소중립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상 속 실천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됨.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지하화·현대화를 통해 친환경 복합시설로 새롭게 조성된 시설로, 지하 1~2층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월평균 1만 4,000톤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을 확보함. - 2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옥상에는 문화콘서트와 체험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연장 및 옥상정원 전망대가 마련되어 주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 인프라와 시민 친화 공간을 결합한 복합시설로서의 기능 수행.
	<p>□ 하남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259곳 집중 점검... 탄소중립 실현 박차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하남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지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59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점검 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이상 음식점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한정됨. -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1kg 처리 시 약 0.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가 도시 전체 탄소 배출 저감에 직결되는 사안이며, 점검반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보관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임. -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점검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안내할 계획임.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남동발전·경상국립대, '2026 탄소중립 바이오차 포럼' 공동 주최... 산학연관 협력 강화 (2026.05.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남동발전이 경상국립대학교와 지난 14일 '대한민국 바이오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6 탄소중립 바이오차 포럼'을 공동 주최해 산·학·연·관 관계자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함. 경상국립대 바이오차 연구센터장 서동철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경상국립대 이병현 연구부총장, 한국남동발전 이영기 안전기술부사장, 최종태 코리아바이오차 협회장의 축사로 막을 올림. - '전문가 세션'에서는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 바이오차의 경제적 활용 가치를 중점 논의했으며, 기존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차 고품질화 방안과 발전소 바이오매스 및 곤충 부산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바이오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농업환경적 기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 공유. - '기업 세션'에서는 고온 바이오차 생산 공정 소개와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흐름 속 바이오차의 환경적 가치 조명, 토양개량용 바이오차의 시장 진출 및 산업화 전략 등이 제시됨. 김군희 한국남동발전 KOEN연구소장은 학술 연구를 넘어 기업의 상용화 전략까지 아우르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차 산업 생태계 조성 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학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강조함.
<p>지자체</p>	<p>☐ 충북교육청, '2050 학교환경교육 실천단' 30여 명 대상 친환경 시설 현장 체험 연수 진행 (2026.0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청이 20일 '2050 학교환경교육 실천단'과 환경 교육에 뜻을 둔 교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선진 시설과 일선 학교를 둘러보는 현장 체험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함. '태양과 물과 바람의 공간을 찾아서'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연수는 주입식 강의 형태에서 벗어나 실제 공간을 체험하며 학교 현장에 접목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지속가능한 내 옷장' 교육으로 패션산업·기후위기 연관성 조명 (2026.0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손덕현)가 20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속가능한 내 옷장, 기후를 바꾸는 선택' 교육을 실시함. 이번 교육은 친환경 소비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마련. -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문화 속에서 의류 폐기물 증가와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일상 속 작은 선택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요 내용은 패션산업과 기후위기의 연관성,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 방법, 옷 오래 입기와 자원순환, 친환경 소비습관 만들기 등. - 특히 참가자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는 탄소중립 행동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교육의 공감과 실천력을 높였다는 평가. 의류 폐기물과 패션 산업의 환경 영향이 부각되는 가운데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의 한 사례로 자리매김.
	<p>□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국립 대전숲체원서 중학생 대상 '2026 초록숲 감성 캠프' 운영 (2026.05.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국립 대전숲체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초록숲 감성 캠프'를 개최함. 캠프는 자연의 품에서 학생들이 생태 감수성을 회복하고 탄소중립의 가치를 체험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 -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카프라(미래의 집 만들기 등 단체 미션), 움트임(숲길을 걸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선순환 구조 학습), 탄소중립 첫 걸음(팀별 골든벨·보드게임을 통한 산림 가치 인식) 등 3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 - 이은실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마음으로 배우는 생태 전환교육의 현장임을 강조하며, 생태전환교실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삶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실내외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짐.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국회 기후노동위, '전력망 3법' 통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대응 위해 민간기업 송전망 건설 허용 (2026.0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전력망 3법'이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그간 한국전력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전력망 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며, 전력망 민영화 우려 차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적용하고 3년 일몰제를 도입함. -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발전단지가 공동 접속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허 의원은 AI 시대 국가 전력망 혁신의 출발점이라 평가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새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함. <p>☐ 국회, 'AIDC 산업 진흥 특별법' 통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하나 LNG PPA 빠진 '반쪽 해법' (2026.05.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을 위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복합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한 타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나, 정작 핵심인 전력공급대책이 빠져 '반쪽 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됨. AIDC는 24시간 365일 가동돼야 하는 전력 다소비시설로 안정적 전력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비수도권 분산 유도를 위해 AIDC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PPA(전력구매계약) 범위를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법안에서 LNG 발전사업자가 제외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LNG 포함 시 전력계통 운영부담 가중과 수도권 LNG발전소-비수도권 AIDC 간 계약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생산·소비원칙 위배를 들어 반대 입장. - 챗GPT 운영사 오픈AI는 AIDC 전력확보를 위해 LNG 발전설비를 병행 구축하고 메타도 데이터센터 인근 가스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일본 역시 LNG발전소 인근 AIDC 조성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흐름과 대조적임.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의 첫 단추라 평가하면서도 법정 고시 공백과 수도권 전력 병목, PPA 활성화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함.
	<p>□ 고용정보원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발표... AI 시대에도 의사·은행원 등 62%는 현재 유지 (2026.05.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은행원 등 182개 주요 직업 중 114개(62.6%)는 2035년까지 일자리 규모가 '현재 상태 유지'로 전망됨.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직업은 없었고 '다소 감소'는 12개(6.6%)에 그친 반면 '증가'는 9개(4.9%), '다소 증가'는 47개(25.8%)로 집계. - 일자리 증가 분야는 보건·의료·돌봄이며 고령화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수요가 확대될 전망. 데이터 분석 사무직, 디지털금융·자산관리 사무직, 경영기획·마케팅 기획 사무직 등도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날 직업군으로 꼽힘. K컬처의 글로벌 진출로 만화가, 웹툰 작가, 영화·음반 기획자 등 문화·콘텐츠 분야 수요도 증가 예상. - 일자리 감소 예상 직업은 '반복'과 '단순' 업무가 공통된 특징으로, AI가 반복·규칙 업무를 대체하면서 출납 창구 사무원, 은행 사무원 등 일부 사무직 수요 감소 전망.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아동·청소년 관련 직무 수요가 줄고 비대면·셀프 서비스 확산으로 현장接客 인력도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울산 울주군·울산테크노파크, AI 기반 청년 스마트팜 육성사업 추진... 생성형 AI·GPT 적용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울주군과 울산테크노파크가 지역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청년 스마트팜 보급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스마트팜 설비지원, 대단지 스마트팜 설비지원, AI 기반 고도화 지원,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지원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AI 기반 고도화 지원 분야에서는 영상 기반 생육 분석, 병해충 예측, GPT 기반 스마트팜 관리지원 등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용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AX 전략 등 디지털 농업 전환 흐름과 맞물려 지역 농업을 미래형 스마트농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 - 생산 단계뿐 아니라 스마트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지원도 함께 추진하며 시제품 제작부터 인증·패키지 디자인·국내 식품박람회 참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 지원 대상은 울주군 거주 만 18~45세 청년농업인 등이며 신청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
	<p>□ 대구시·디지스트·지역 기업, 국토부 'AI 시티 혁신 기술 발굴' 공모 선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서비스 개발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지역 기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AI 시티 혁신 기술 발굴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5억원을 지원받게 됨. 도시 행정 분야 AI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 - 선정된 과제는 레이더 등 비영상 기반 AI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안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시간 위험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카메라 영상에 의존하지 않는 비영상 센싱 기술 적용이 특징.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접근으로 대구지역 산학연 협력 기반의 도시 AI 서비스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향후 다른 지역 확산 가능성도 기대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해당 없음
지방기관	<p>☐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16개 과제 수주... 172억 규모 제조 AX R&D 추진 (2026.0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지역 기업들과 공동으로 16개 과제를 수주해 총 172억 8,000만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힘. 중기부 사업은 전국 306개 신규 과제에 2년간 총 2,8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며 대구지역은 28개 과제·272억원이 선정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6개에 DMI가 참여. - 분야별로 로봇 분야에서 AI 기반 산업용 양팔 로봇 시스템과 산업현장 안전 플랫폼, 자율작업 로봇 모듈 개발 등 4개 과제(57억 6,000만원)를 추진하며, 모빌리티 분야 7개 과제(61억 6,000만원), 소재부품 분야 5개 과제(53억 4,000만원)가 선정돼 지역 기업의 현장 기술력과 DMI의 연구 역량을 결합한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 나섬. - 송규호 DMI 원장은 16개 과제 선정이 DMI의 연구 역량과 지역 기업들의 혁신 의지가 결합해 이뤄낸 동반성장 성과임을 강조하며, 지역 기업들이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폭 지원할 것임을 표명함. <p>☐ 서울AI허브, 체코 인공지능협회와 MOU 체결... 국내 AI 스타트업 유럽 진출 교두보 마련 (2026.0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AI허브가 체코 인공지능협회와 국내 AI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양국 AI 산업·연구·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AI 스타트업과 기관 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며, 체코 AI협회는 400개 이상의 현지 기업·공공기관·학계·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체코 대표 AI 협회. - 양측은 협약을 통해 상호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IR 행사·투자 연계 추진, 공동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연구 프로젝트·사업 참여 촉진, 한국-유럽 시장 진출 협력, 기관 간 네트워크·행사·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p> <p>- 변우석 서울AI허브 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서울 AI 스타트업들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교두보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루카시 벤즐 체코 AI협회장은 서울AI허브와의 협력으로 양국 AI 생태계 간 연결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p>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코스맥스, 한화솔루션 큐셀과 태양광 PPA 체결... 국내 공장 전력의 40% 재생 에너지 전환 (2026.05.19)</p> <p>- 코스맥스가 지난 18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태양광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며 탄소중립 경영에 속도를 낸. 계약에 따라 코스맥스는 7월부터 화성과 평택공장 4곳에서 연간 10.4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이는 국내 공장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p> <p>- 코스맥스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 총 32개 감축과제를 추진 중이며,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24년 대비 5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외부 재생에너지 조달과 함께 자체 발전 설비 확충도 병행해 평택 1공장 6동 옥상에 499.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증설 중이며, 2026년 4분기 발전 시작을 목표로 연간 약 638MWh의 재생에너지를 추가 생산할 계획.</p> <p>- 현재 국내 6개, 해외 6개 등 글로벌 12개 사업장에서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제품 전과정 평가(LCA) 체계 구축도 진행 중. 지난해 제품탄소발</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자국(PCF) 산출 프로세스를 완성했으며 올해는 제품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LCA 체계 구축 마무리 예정.</p>
	<p>□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나비오스 사이언' 명명식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J중공업(대표이사 유상철)이 14일 오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900TEU급 컨테이너선 '나비오스 사이언(NAVIOS CYAN)' 명명식을 개최함. 행사에는 선주사인 그리스 나비오스 마리타임의 순지 사사다 부회장과 유상철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 이 선박은 HJ중공업이 2024년 수주한 7900TEU급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로 건조된 선박이며, 선주의 추가 옵션 행사로 총 수주 규모가 4척으로 늘어남. - 이번 컨테이너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탈황설비인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메탄올 연료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최신 3차원 선형 설계를 적용해 컨테이너 적재 용량을 최대화함. HJ중공업은 이 선박의 납기를 계약 대비 2개월 이상 앞당겨 안정적 공정 관리와 고품질 건조 역량을 인정받음. - HJ중공업은 2012년 5500TEU급 컨테이너선 6척 수주를 시작으로 상선 건조를 재개해 7700TEU급 LNG DF, 9000TEU급 메탄올 DF 선박을 거쳐 이번 7900TEU급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선박 건조 실적을 축적함. 유상철 대표이사는 향후 지속적인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6,000~10,000TEU급 컨테이너선 시장을 공략할 계획임을 밝힘.
	<p>□ 스피폭스, 알루미늄 부산물 활용한 '파파야 시스템'으로 난방에너지 22% 절감 도전 (2026.05.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케이스 제조 강소기업 스피폭스가 제조 공정상 하루 약 4톤 발생하는 알루미늄 부산물을 활용한 온돌용 열전도판 '파파야 시스템'으로 탄소중립 시장 공략에 나섬. 김효진 신임 대표이사는 파파야 시스템을 단순한 난방 자재가 아닌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이끌 핵심 기술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 건축환경연구팀과의 공동 실험 결과 일반 온돌방(Cell 1)에서는 105시간 연속 난방 시 103.1kWh의 에너지가 소비된 반면 파파야 시스템이 적용된 Cell 2에서는 약 22% 적은 80.3kWh가 소비됨이 확인됨. 세대당 연간 300kg에서 1톤에 달하는 탄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실험에서는 m²당 4,553.5원 절감(전용면적 119m² 기준 세대당 연간 54만원 이상)이 입증됨. - 파파야 시스템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과 2020년 환경부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LH 향남지구, 신반포 21차,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됨. 스피폭스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ECO2) 프로그램에 파파야 시스템 기술 반영을 신청한 상태로, 제도권 공식 편입 시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건축비 가산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릴 전망.
대학교	<p>□ 공주대, 산업부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선정... 6년간 13억 지원받아 저탄소 콘크리트 개발 (2026.05.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R&D)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2026~2031년 6년간 총 사업비 13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게 됨. 공주대 김진만 교수가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 - 이번 사업은 '혼합재 사용 증대를 위한 상용화 제조 및 현장 적용 실증 기술개발'을 주제로 추진되며, 한일시멘트(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양대, 한라시멘트,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쌍용C&E, 아세아시멘트, 롯데건설 등 산·학·연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 - 공주대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성능 평가와 현장 적용성 검증 분야를 담당하며, 저탄소 건설소재의 실용화와 탄소중립형 건설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예정. 시멘트 산업이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혼합재 사용 확대를 통한 탄소 저감 기술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상지대 농업탄소중립인력양성사업단, 몽골 식량농업경부 고위 공무원단에 스마트농업 연수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지대 농업탄소중립인력양성사업단(단장 이명규)이 12일 교내 스마트팜 시설 및 강의실에서 몽골 식량농업경부(MOFALI) 고위급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채소 보급사업 초청연수' 현장 교육을 실시함. 이번 연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세계가나안운동본부, Rural Pathways가 공동 주관. - 연수에는 몽골 식량농업경부 산하 식량농업경영연구개발센터의 Nandintsetseg Sookhuu 혁신보급과장을 비롯해 몽골 중앙정부 부처 관계자와 어르헝, 도르노드, 홉드, 바얀헝거르 등 주요 지역의 농업 전문 공무원들이 참석함. 상지대 황선구 교수 등이 몽골 현지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과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모델에 대해 강의했으며 교내 작물재배 시험포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봄. - 몽골 공무원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향후 몽골의 온실채소 보급 사업과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이명규 단장은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과 자원순환 모델이 몽골의 농업 환경 개선과 식량안보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국제 기술 교류를 통한 농림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여 의지를 표명함.
해외	<p>□ 맥도날드, 2030년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난항 인정... 10년간 10억 달러 투입 (2026.0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가 공급망과 프랜차이즈 매장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공식 인정함. 회사 측은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 속도가 청정에너지 보급 속도를 앞지르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세계적 사건과 지정학적 혼란의 장기적 영향으로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 - 맥도날드는 이에 대응해 향후 10년간 공급망 개선에 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투자 대상에는 재생농업 등이 포함됨. 회사는 식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 2030년 중간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지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2050년 넷제로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p> <p>- 직접 운영과 더 관련이 큰 스코프1·2 배출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핵심 부담은 공급망과 가맹점에서 발생. 글로벌 식품기업의 탄소감축이 선언보다 실행 단계에서 더 어렵다는 점이 이번 발표로 재확인되며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흐름 속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목표 재조정 가능성도 시사됨.</p>
기타	<p>- 해당 없음</p>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그린푸드, AI 영양상담 서비스 '그리팅 X'로 독거노인 식단 지원... 케어푸드 CSR 확대 (2026.05.19)</p> <p>- 현대그린푸드가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그리팅 X SCL 시니어 웰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힘. 케어푸드 브랜드 '그리팅'과 SCL의 출장 건강검진 서비스를 결합한 재가형 CSR 프로그램으로, 단순 식단 기부를 넘어 건강검진과 AI 기반 영양상담, 봉사활동까지 아우르는 종합 시니어 케어 모델을 제시.</p> <p>- 성남시 거주 독거노인 50여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비타민 검사·장내세균 검사 등 맞춤형 건강검진과 영양상담을 제공하고,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영양상담 서비스 '그리팅 X'를 통해 개별 맞춤형 영양 상담을 진행함. 전문 영양사가 사전 설문지를 토대로 어르신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을 확인하고 AI를 활용해 최적의 식습관 개선 방안, 영양 균형 관리, 운동법 등을 종합 제안.</p> <p>- 현대그린푸드는 2020년부터 성남시 독거노인 240명을 대상으로 그리팅 식단 기부</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활동을 진행하며 올해로 7년째 CSR을 이어오고 있으며, 당뇨식단·고혈압식단 등 질환식과 저속식단 등 건강식을 매주 4끼씩 무상 제공해 현재까지 누적 약 23만 식을 전달함. 초고령사회 시니어 케어 모델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 표명.</p>
	<p>☐ 롯데그룹, 챗GPT 앱스 활용 'AI 커머스' 확대... 홈쇼핑·웰푸드·칠성음료·시네마 잇따라 연동 (2026.05.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그룹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커머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업계 최초로 챗GPT에서 롯데홈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앱을 18일 선보임. 챗GPT 내에서 대화만으로 방송·상품 검색부터 비교, 혜택 확인, 구매까지 가능한 '원스톱 AI 쇼핑' 기능을 구현. - 앞서 롯데백화점, 롯데ON 등 롯데 계열사 다수가 챗GPT 자사몰 서비스를 연결한 전용 앱을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시네마 등이 챗GPT 내 앱 형태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AI 플랫폼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잠재력을 활용해 변화를 선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챗GPT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32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37만명 증가하며 생성형 AI 앱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함. 업계 관계자는 AI 플랫폼 안에서 상품 탐색·추천·구매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유통기업 입장에서선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AI 플랫폼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함.
	<p>☐ SK AX, 오픈AI와 엔터프라이즈 AI 서비스 파트너 계약 체결... SI 빅3 모두 합류 (2026.0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AX가 오픈AI와 엔터프라이즈 AI 사업 협력을 위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함. 앞서 삼성SDS는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고 LG CNS 역시 올해 초부터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국내 시스템 통합(SI) 대형 3사 모두 오픈AI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AX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기업별 업무 환경과 보안 요건에 맞는 AI 활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임.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나눈 대화는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아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사내 시스템·데이터와 연계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기존 개인용 챗GPT 이용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직접 재판매하는 리셀러 파트너 자격은 삼성SDS와 LG CNS만 보유. -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기업용 AI 시장은 2024년 239억 5,000만달러(약 35조 7,000억원)에서 2030년 1,552억 1,000만달러(약 231조 6,500억원)로 약 6.5배 커질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7.6%에 달함. 오픈AI '2025년 기업용 AI 현황' 보고서에서도 챗GPT 엔터프라이즈 대화량이 전년 대비 약 8배 증가함.
	<p>□ SK에코플랜트, 1분기 매출 99% 급증... AI 인프라·반도체 사업이 성장 견인 (2026.0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에코플랜트가 AI 인프라와 반도체 사업 확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림. 연결 기준 매출액 4조 8,997억원, 영업이익 9,314억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9% 증가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M15X, 울산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 반영되며 실적 개선을 견인. - 사업 부문별로 반도체 제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확대된 데다 반도체 소재·산업용 가스·메모리 반도체 생산·유통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됐으며, 반도체·AI 인프라 구축(Hi-Tech) 부문 매출이 1조 4,746억원, 반도체 가스·소재 부문 매출 2,053억원, 메모리 모듈 제조·재활용 부문 매출 2조 3,555억원을 기록하며 3개 부문이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함. -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획·설계 단계부터 EPC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역량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채비율이 2024년 말 233%에서 올해 1분기 말 176%로 낮아지며 개선세를 보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차·기아, 인도 최상위 4개 공과대학과 전기차·AI 공동 연구 체계 구축 (2026.05.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도 최상위 수준 공과대학들과 공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함. 인도공과대학교(IIT) 하이데바라드, 칸푸르 2개 대학과 비스베스바라야 국립공과대(VNIT) 나그푸르, 테즈푸르 대학 등 총 4개 대학이 '현대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와 공동 연구 체계 참여 계약을 체결. - IIT는 인도 전역에 23개 캠퍼스를 보유한 인도 최고 수준 공과대학이며 VNIT 나그푸르와 테즈푸르 역시 인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명문 공립 공과대학으로, 현대차·기아는 2025년에도 인도 3개 대학과 산학협력을 시작한 바 있어 이번 계약 체결로 현대 혁신센터와의 공동 연구가 사실상 인도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평가. - 현대차·기아는 인도 대학들과 배터리·전동화 분야 외에 관련 신소재 연구, AI 기반 양방향 충전 기술(V2G) 플랫폼 개발 등 총 39건의 산학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다음달 중 7개 대학 학장과 교수를 한
	<p>□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출시... 차세대 생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 최초 탑재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가 플래그십 대형 세단 그랜저의 7세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를 출시함. 신형 그랜저는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Pleos Connect)'를 탑재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의 개방형 운영체제(AAOS)에 기반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면모를 강조한 것이 특징. - 플레오스 커넥트에는 대형 언어 모델(LLM) 기반의 차세대 생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가 탑재돼, 자연스러운 연속 대화를 이해하고 지식검색, 일정 추천에 더해 감성적 대화까지 지원하는 지능형 비서 역할을 수행함. 1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로 속도·경로 등 주요 정보와 내비게이션·미디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 - 첨단 운전자 보조기능으로 차량이 지나온 궤적을 스스로 기억해 후진 시 조향을 제어하는 기억 후진 보조(MRA) 기능과 인사이드 미러 카메라로 운전자 시선·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1열 모니터링 시스템(ICMU)이 적용됐으며, 가솔린 2.5·3.5, LPG 3.5,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p>
	<p>□ 구글플레이, '창구 8기' 스타트업 100개사 선정... AI 활용 앱·게임에 글로벌 지원 확대 (2026.05.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플레이가 국내 유망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글로벌 행보를 돕는 '창구 프로그램' 8기 참여 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공동 운영하는 창구 프로그램은 콘텐츠 완성도와 혁신성,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년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대표적 민관 협력 사업. - 올해 선정된 8기 기업들은 교육·생활·게임·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시도가 돋보였으며, 구글의 '제미나이 API' 기반 에이전트로 콘텐츠 생산·검수를 자동화한 영어 학습 앱 '싸다보카', 전통 저승 세계관 기반 실시간 추론 크로스 플랫폼 게임 '귀귀살전', AI가 사용자 메시지를 분석해 감정 일기를 써주는 '마이모리' 등이 대표 사례. - 지난해 7기 100개사의 경우 프로그램 기간(2025년 5~12월) 합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늘어난 516억 9,000만원을 기록했고 수출액(54억원)은 90% 급증했으며 전체 다운로드 수 역시 839만건으로 53%가량 증가함. 구글플레이는 8기 선정 기업들에게 맞춤형 세미나, 1대1 심층 컨설팅, VC 투자 유치 상담, 클라우드 크레딧 등 전방위 지원과 함께 AI 특화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제공할 계획.
	<p>□ 대교 솔루니, 'AI 글쓰기 평가' 활용 전국 논술대회 개최... 초·중생 대상 6가지 글쓰기 요소 평가 (2026.05.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교 솔루니가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AI 기반 글쓰기 평가를 활용한 '솔루니 전국 논술대회'를 개최함. 자체 개발한 '솔루니 글쓰기 AI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주제, 문장, 구성, 어휘, 문법, 표현의 6가지 글쓰기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독서·글쓰기 학습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는 뉴베리상, 안데르센상, 노벨문학상 등 국내외 문학상 수상작 중 선정 도서를 읽고 논제를 선택해 독서감상문, 설명문, 주장하는 글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임. 솔루니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참여 가능. - 수상자는 다음달 17일 솔루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대상 1명과 우수상 6명, 우수상 18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 대교 측은 AI 기반 글쓰기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독서 논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 표명.
대학교	<p>□ KAIST, 봉지재 없이 27% 효율·4년급 안정성 갖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AI 데이터센터 우주 전력 적용 기대 (2026.05.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이정용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와 함께 봉지재 없이도 고온·고습 환경을 견디는 27%급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구현했다고 19일 밝힘. 일론 머스크가 우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우주 태양광의 핵심으로 꼽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한 성과. - 연구팀은 깊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PM1' 유기 고분자를 도입해 기존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공 축적과 'S자형 전류-전압 왜곡' 현상을 제거함. 최고 효율 27.18%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인 효율 26.71%를 달성했으며, 봉지재 없이 85℃·85% 상대습도 조건에서 3,000시간 후에도 초기 효율의 95% 이상을 유지. - 연구팀의 예측 결과 상온(25℃) 기준 T80(초기 효율 80% 도달 시간)이 3만 5,590시간으로 환산돼 봉지재 없이도 약 4년급 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시함. 이정용 교수는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연구성과는 5월 18일 '네이처 에너지'에 온라인 게재됨. <p>□ KAIST 총장 후보 3배수 확정... 류석영·배충식·이도현 교수, AI 전환기 리더십 향배 주목 (2026.05.17)</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가 지난 15일 면접 심사를 거쳐 류석영 전산학부 교수, 배충식 기계공학과 교수, 이도현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기획처장)를 총장 후보 3배수로 확정함. 면접을 통과한 3인 후보는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실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 뒤 KAIST 이사회 투표를 통해 신임 총장으로 선임될 예정. - 이번 총장 선임 절차는 장기간 공백 끝에 재추진되는 것으로, 이광형 현 총장 임기는 지난해 2월 종료됐으나 계엄과 새정부 출범 등으로 후임 총장 선임 절차가 지연됨. 올해 2월 총장 선임 이사회에서 후보자 중 누구도 출석 이사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최종 선임이 무산된 바 있음. -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총장 선임이 AI 전환과 첨단 전략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KAIST의 연구·교육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간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대학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AI 전환·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상황에서 KAIST 리더십 공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음. <p>□ KAIST, 과기외교센터(KCSD) 출범 글로벌 포럼 개최… AI 시대 기술주권·국제공조 해법 모색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가 13일 과학기술과 외교를 연계하는 '과기외교센터(KCSD)'를 공식 출범하고 이를 기념하는 글로벌 포럼을 개최함. 학술 교류 수준을 넘어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 성격이 강하며, KAIST는 앞으로 AI·에너지·기후위기·고령화·디지털 전환 등 인류 공동 과제를 국제 협력 체계 안에서 풀어간다는 구상. - 포럼 현장에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싱가포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필리핀, 태국, 헝가리, 몽골, 탄자니아 등 주요국 대사와 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함.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자 과기외교센터 자문위원장이 'AI 시대 과학외교의 중요성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AI 기술혁명 이후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안보 환경 속에서 각국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과 국제 공조 체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설계 방안을 논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광형 KAIST 총장은 과학기술이 이제 국가 경쟁력을 넘어 국제 신뢰와 공동 번영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KAIST 과기외교센터가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힘. <p>□ 경북과학대, 칠곡군과 AI·디지털 생활문해교육·RISE 산학협력 협약 잇따라 체결 (2026.0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과학대학교(총장 정은재)가 칠곡군과 AI·디지털 생활문해교육과 RISE 사업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함. 지난 18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AI·디지털 생활문해교육 활성화 협약과 RISE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이 진행됨. - AI·디지털 문해교육 협약은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 속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생활과학(뷰티) 분야를 접목한 체험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주민들의 실생활 활용 능력을 높이기로 함. - RISE 협약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활성화를 통한 정주형 인재 양성,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고도화 등을 담고 있으며, 단순 교육 협력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맞물려 있어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정주까지 연계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줄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p>□ 강원도립대, 교육부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3년간 23억 확보 (2026.0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최종균)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충청·강원권역을 대표하는 단독형 사업단으로 선정됨. 교육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전국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 목표 타당성, 추진 실적·계획 구체성, 체계적 추진 시스템 등을 심사한 후 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중 24개 사업단을 확정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1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 2월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강릉시·고성군·양양군과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3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3억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됨. 첨단 AI 교육 인프라 구축과 재학생·교직원, 지역주민·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AI 교육 서비스 제공에 활용 예정. - 사업은 AI 교육 인프라 구축, '진입-회복-가속' 단계적 학습 생애주기 기반 AI·DX 교육과정 운영, 강릉·고성·양양 지역주민·재직자 대상 'X+AI 단기 직무교육'과 디지털 배지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지역 산업체 전문가가 교육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산학협력 모델 도입 등을 추진. 최종군 총장은 강원 지역의 AI·DX 전환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강조함.
	<p>□ 국립부경대 창업기업 팀리부뜨, 해양수산부 딥테크 사업 선정... 27억 규모 해운 AI 플랫폼 개발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기업인 AI 스타트업 팀리부뜨가 14일 해양수산부의 딥테크 전환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며 해운 물류 분야 AI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함. 부산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 협력형 프로젝트로, 팀리부뜨가 주관하고 국립부경대와 부산대 연구진이 공동 참여하는 산학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됨. 총사업비는 27억원 규모이며 연구는 오는 2028년 말까지 진행됨. - 개발 과제는 이메일과 엑셀, PDF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자동 분석해 선박 운영에 필요한 조달과 재고,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기존 해운 조달 시장은 담당자의 경험과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긴급 발송과 재고 과잉, 핵심 부품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으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선박 도착 시점과 물류 흐름, 운송 방식 등을 자동 분석·추천하는 통합 의사결정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 - 국립부경대 시스템경영공학부와 부산대 산업공학과 연구진이 참여해 확률 기반 최적화와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선박 입항 시간 변화와 물류 제약 조건을 실시간 반영하는 자율형 운영 기술도 함께 개발 예정. 최성철 팀리부뜨 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표는 AI가 스스로 판단·실행하는 해운 조달 체계를 구축해 부산발 해운 AI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의지 표명.</p> <p>□ 숭실대 박찬준 교수, 59억 규모 '독서토론 돕는 AI 에이전트' 개발 과제 공동연구책임자 선정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숭실대는 박찬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토론과 소통으로 지식을 연결하는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 과제에 공동연구책임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힘. 성인 독서 토론 활성화를 위해 AI가 대화를 주도하는 '지능형 퍼실리테이터' 기반 토론 특화형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 - 과제는 향후 33개월간 총 59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주관기관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숭실대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형태. 박 교수 연구팀은 '에이전트 평가' 분야를 담당하며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에이전트가 토론 참여자 간 지식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정도를 검증하는 평가 지표와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예정. - 컨소시엄은 독서 토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며 AI 기반 지식 소통 서비스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 박 교수는 독서 토론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AI를 인간의 인지 활동을 보완하는 기술적 접근이라 평가하며 공공문화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 체계 마련에 대한 의지 표명.
해외	<p>□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구자열 회장 "韓·日, 에너지·공급망·피지컬AI 동맹으로 생존해야" (2026.05.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19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한일·일한·양국 경제협회의 신입회장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한일 최고경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한일이 함께 나아가는,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함. - 구 회장은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 AI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을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 구축한 순망치한의 관계'로 규정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고, △에너지·전력 인프라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제조업을 위한 AI·로봇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함. 특히 부산-후쿠오카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 'JAKO 프로젝트'와 슈퍼그리드, HVDC, 해상풍력 등 전력망 협력 프로젝트 다수 필요성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중국 중심의 AI·로봇 생태계가 구축되는 가운데 한국이 스마트팩토리·공정 자동화·데이터 기반 생산운영에서, 일본이 센서·정밀기계·제어 안전 기술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양국이 제조 현장 중심 '피지컬 AI 공동 실증'을 추진하고 공동 안전 기준·테스트 프로토콜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한국 측 신동빈 롯데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 130여명, 일본 측 도요타·마루베니 등 100여명이 참석.
	<p>□ EU 이사회, 국방·AI·반도체 등 핵심 분야 FDI 심사 의무화 규정 통과… 中 우회투자 차단 (2026.05.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회원국가들을 대표하는 공동 입법기관인 EU 이사회에서 지난 12월 잠정 합의한 새로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정을 통과시킴. 외형은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실질은 중국 자본인 '넥스페리아 사태'를 겪으면서 허점으로 꼽혀온 외국 기업의 'EU역내 간접투자'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 규정은 18개월후인 2027년 말부터 발효될 예정. - 유럽의회는 찬성 508표, 반대 64표로 국방, 반도체, 인공지능, 핵심 원자재, 금융 서비스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를 의무화하는 EU 회원국 합의안을 승인함.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양자역학·반도체, 원자재, 항공우주, 에너지, 운송·디지털 인프라, 금융 시스템 관련 기업과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투표 시스템 등 선거 인프라가 심사 대상에 포함. - 개정된 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넘어 제3국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의 EU 역내 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27개 회원국 전체에 걸쳐 심사 기준을 간소화해 투자자들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함. 법안을 주도한 라파엘 글뤽스만 EU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유럽이 '순진함이라는 한 시대를 마감한다'고 평가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머스크, 오픈AI 상대 1,500억달러 소송 '시한 만료' 1심 패소... 즉시 항소 예고 (2026.05.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때 동업 관계였던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오픈AI의 비영리 운영 약속을 깬다며 제기한 1,500억달러 규모 소송 1심에서 18일(현지시간) 패소함.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지원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올트먼·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 소송이 '법적 기한을 넘겼다'며 만장일치로 기각 의견을 냄. - 공익신탁 의무 위반 소송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머스크는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야 계약 위반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 제기 3년 전인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함. 머스크는 올트먼 해임, 영리 정책 폐기, 오픈AI가 얻은 이득 1,340억달러의 비영리 재단 반환을 요구했었음. -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기업공개(IPO)와 초대형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오픈AI 기업가치는 약 7,300억달러로 평가됨.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최대 투자자로서 지분 가치 상승 수혜를 이어갈 수 있게 됨. 다만 오픈AI와 MS를 상대로 한 반독점 청구가 남아 있어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힘.
	<p>□ 몰타, 오픈AI와 '전 국민 챗GPT 플러스 1년 무상 제공' 계약 체결... 세계 첫 사례 (2026.05.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모든 국민이 1년간 '챗GPT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몰타 정부와 맺음.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몰타 정부와 오픈AI는 최근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중 시작됨. 챗GPT 플러스를 이용하기 전에 AI 사용법 교육 과정을 무료로 이수해야 함. - 챗GPT 플러스는 월 20달러(약 2만 9,000원) 수준에 이용 가능한 유료 서비스로, 무료 버전보다 사용 한도가 높고 파일 첨부, 맞춤형 챗봇(GPTs) 제작 등 다양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기능을 지원함. EU 회원국인 몰타의 인구는 2026년 기준 약 55만명이며 해외에 사는 몰타 시민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 몰타 국민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원에 따라 프로그램 대상 규모가 정해지는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오 쉘브리 몰타 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AI라는 생소한 개념을 가족, 학생,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국가는 몰타가 처음이며 오픈AI는 이번 거래의 재정적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음. 앞서 몰타는 2019년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해 '2030 AI 허브'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p>□ 미국, '반도체 통제 협상 대상 아니다' 재확인... 미·중 AI '각자도생' 흐름 가속화 (2026.0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으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도와 주는 안보 포기과 다름없다고 경고. -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으며,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압박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일본, 곰 출몰 급증에 AI 영상분석·드론 활용 본격화… 인구 천여 명 마을 사례 주목 (2026.0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최근 AI와 드론을 활용해 곰 퇴치에 나선 곳이 있음. 인구 천여 명의 후쿠시마현 쇼와무라는 최근 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예년에는 30마리 정도가 잡혔지만 지난해는 사상 최고인 95마리가 잡혔고 주민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함.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지난달부터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AI 감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 AI 영상 분석 카메라가 동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촬영한 뒤 곰으로 판정되면 경찰과 관계 기관에 즉시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이며, 통신업체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감지할 수 있어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드론을 활용하는 곳도 있음. 도쿄의 한 통신업체는 900km나 떨어진 홋카이도 '신토츠키와초' 관청에 드론을 배치해 운영 중이며 곰 목격 신고가 들어오면 10분 안에 드론을 날리고 경찰 등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방식. 원격 조종이 가능해 전문 조종사가 없는 지자체도 도입할 수 있는 점이 장점.
	<p>□ 일본, 곰 출몰 급증에 AI 영상분석·드론 활용 본격화… 인구 천여 명 마을 사례 주목 (2026.0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최근 AI와 드론을 활용해 곰 퇴치에 나선 곳이 있음. 인구 천여 명의 후쿠시마현 쇼와무라는 최근 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예년에는 30마리 정도가 잡혔지만 지난해는 사상 최고인 95마리가 잡혔고 주민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함.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지난달부터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AI 감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 AI 영상 분석 카메라가 동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촬영한 뒤 곰으로 판정되면 경찰과 관계 기관에 즉시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이며, 통신업체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감지할 수 있어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드론을 활용하는 곳도 있음. 도쿄의 한 통신업체는 900km나 떨어진 홋카이도 '신토츠키와초' 관청에 드론을 배치해 운영 중이며 곰 목격 신고가 들어오면 10분 안에 드론을 날리고 경찰 등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방식. 원격 조종이 가능해 전문 조종사가 없는 지자체도 도입할 수 있는 점이 장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美 컬럼비아대, 'STaR' AI 시스템으로 무정자증 남성 정자 식별... 클라인펠터 환자 임신 성공 첫 사례 (2026.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BBC는 미국 컬럼비아대 제브 윌리엄스 교수팀이 5년간 연구 끝에 2024년 개발한 '스타(STaR · Sperm Track and Recovery)' 시스템을 통해 무정자증 남성의 '숨겨진 정자'로 임신에 성공한 사례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소개함. 스타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무정자증 남성에게 극소수의 '숨겨진 정자'를 식별·발굴하는 기술. - 윌리엄스 박사는 최근 이 기술을 사용한 환자 175명 중 약 30%에서 정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전함. 일반 남성 정액에는 ml당 수천만개의 정자가 있지만 무정자증 남성 정액 샘플에서는 단 한 개의 정자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AI를 활용한 스타 시스템은 숙련된 인간 기술자가 수동으로 찾는 것보다 40배 더 많은 정자를 발견할 수 있음. 초당 3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하며 민감도 100%를 달성함. -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진 새뮤얼(가명)의 경우 9개월간 호르몬 치료를 마친 뒤 고환 조직 일부를 채취해 연구팀에 보냈고, 연구팀은 여기에서 정자 8개를 분리해 아내 페넬로페(가명)의 난자에 주입했으며 오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음. 다만 장기적 결과를 평가하려면 더 많은 대규모 임상 시험과 환자 기밀 유지·책임·소유권 관련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기타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